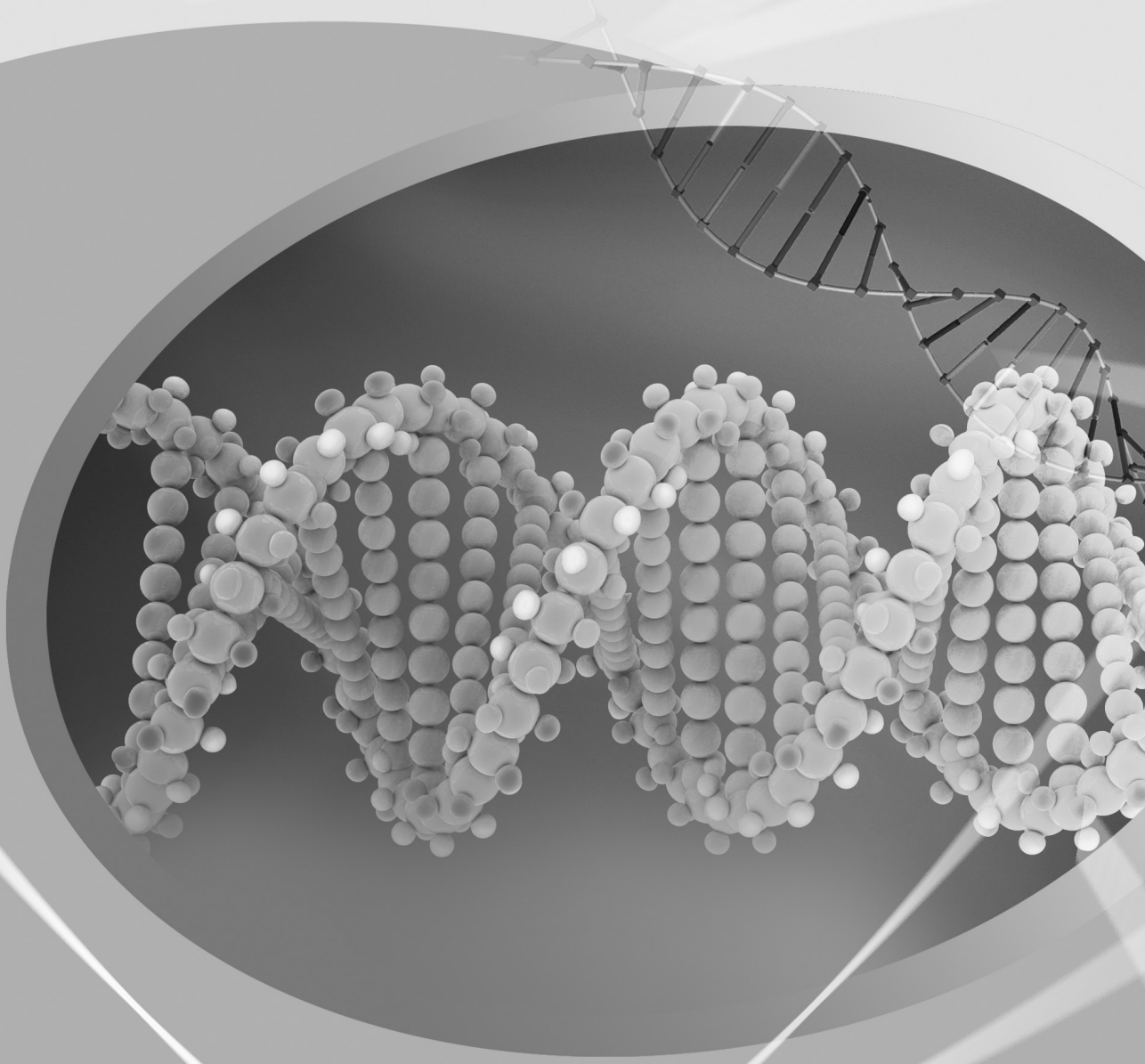
WBF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창립 3주년 기념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시상식



Women's Bioscience Forum

한국과학문화재단
KOREA SCIENCE FOUNDATION

L'OREAL
for Women in Science
pour les Femmes et la Science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임원 및 운영위원

회 장 : 김지영 (경희대생명과학대학)

부 회 장 :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경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총 무 : 이경림 (이화여대약대)

운영위원 :

고문	나도선 (울산대 의대), 유경자 (연세대 의대)
이사회간사	김성주 (가톨릭대 의대)
대회협력위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재무	임사비나 (경희대 한의대)
기획	김혜선 (아주대), 정해정 (대전대)
편집	강영희 (한림대), 김명옥 (경상대), 오유경 (포천중문 의대), 조은희 (조선대), 최미영 (선문대)
학술	강인숙 (경희대 의대), 김은희 (배재대), 송기원 (연세대)
정보	김영미 (울산대 의대), 이영주 (세종대)
홍보	이숙경 (가톨릭대 의대), 손영숙 (원자력의학원)
회원	부하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황덕주 (농촌진흥청)

감 사 : 윤혜숙 (서울대), 이호자 (경희대)

인 사 말

존경하는 여성생명과학포럼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여성생명과학기술자의 능력개발과 상호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포럼이 설립된지 어느새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본포럼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을 거듭하여 회원의 능력개발이라는 취지를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과학인력개발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여성과학자의 기회균등을 통한 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입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여성생명과학기술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훌륭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포럼은 이제 걸음마를 떼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세 돌 박이로서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WISE (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program을 설립하여 그 거점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이화여대 이혜숙 교수님과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변화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신 정세욱 박사님의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21세기 생명공학의 시대에 여성과학 인력의 능력 발현을 극대화하여 한국사회의 경쟁력과 변화를 이끌어 갈 우리 여성생명과학기술자들의 리더십 개발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강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포럼은 총회와 더불어 제 3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시상식을 거행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 권위를 더해가는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은 올해도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여성생명과학자의 발전에 기여한 진흥상 수상자와 유망한 신진과학자의 약진상 수상자, 그리고 여성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상 수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본 포럼이 지원하는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이 여성생명과학기술자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권위 있는 포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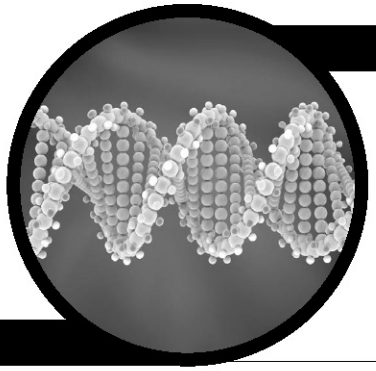
여성생명과학포럼 회원 여러분!

연구와 강의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여성생명과학기술자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김지영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창립 3주년 기념 총회, 심포지엄 및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시상식

사회: **배 경 숙**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개회사 **김 지 영** (회장)

축 사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

격려사 **허 운 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Session 1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시상식

14:00 ~ 14:20 인사말 **김 상 주** (로레알 코리아 회장)

시상식

좌장: **노 정 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14:20 ~ 14:4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프리젠테이션 "여성과 과학"

14:40 ~ 15:10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수상 강연

15:10 ~ 15:30 Coffee Break 및 기념 촬영

Session 2 심포지엄 및 총회

좌장: **조 해 월** (국립보건원 원장)
박 행 순 (전남대 약학대학 교수)

15:30 ~ 16:00 "여성 과학기술 인적자원과 여성 네트워크의 역할"
이 혜 숙 (이화여대 교수, WISE 거점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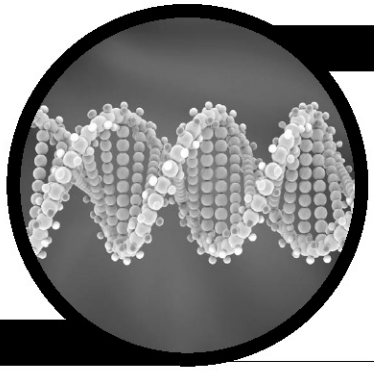
16:00 ~ 16:30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
정 세 욱 (명지대 명예교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16:30 ~ 17:30 총회

17:30 폐회선언

Session 3 리셉션

17:30 ~ 19:30 기념 리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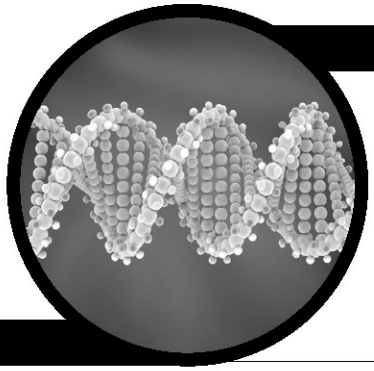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연혁

2001년 3월 4일	창립추진위원회 결성
2001년 3월 24일	1차 창립추진위원회
2001년 4월 21일	2차 창립추진위원회
2001년 6월 6일	3차 창립추진위원회
2001년 6월 9일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창립대회
2001년 7월 14일	1차 운영위원회 및 1차 이사회
2001년 8월 11일	2차 운영위원회
2001년 9월 15일	3차 운영위원회
2001년 10월 20일	4차 운영위원회 및 2차 이사회
2001년 11월 24일	5차 운영위원회
2001년 12월 17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01년 12월 29일	6차 운영위원회
2002년 1월 11일	사단법인 등기 완료
2002년 1월 11일	2002-1차 운영위원회 및 2002-1차 이사회
2002년 1월 29일	제 1차 심포지움 및 임시총회
2002년 2월 16일	2002-2차 운영위원회 및 2002-2차 이사회
2002년 5월 6일	로레알코리아와 여성포럼의 양해 각서 체결
2002년 6월 15일	제2회 심포지엄 및 총회
2002년 6월 15일	제1회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시상
2002년 9월 6일	유경자 교수 은퇴기념 축하연
2003년 1월 10일	2003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2003년 6월 17일	제2차 심포지움 및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시상
2003년 12월 6일	임시총회 및 차기회장 선출
2004년 1월 17일	2004-1차 운영위원회
2004년 3월 6일	2004-2차 확대 운영위원회 및 최명자 박사 은퇴기념축하연
2004년 4월 24일	2004-3차 확대 운영위원회
2004년 6월 12일	2004-4차 운영위원회

심포지엄 및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시상식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의 취지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생명과학 진흥상 수상자들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유입촉진에 관한 심포지엄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상의 취지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 설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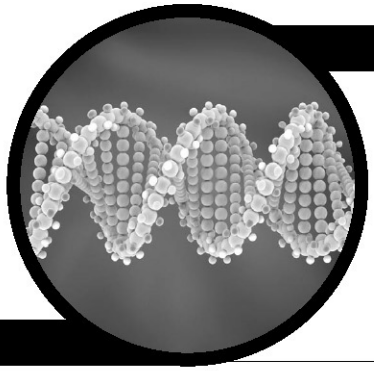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과 로레알코리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참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생명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기술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을 제정하고 시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세계 1위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여성과학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에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협력하에 '로레알-유네스코 세계 여성과학자상 (L'Oreal-UNESCO Awards for Women in Science)'을 제정하여 5개 대륙별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5명의 여성과학자들와 함께 15명의 신진과학자들을 위한 펠로쉽을 지원하고 있다. 로레알 파리, 랑콤, 랄프로렌,비오템 등 많은 유명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로레알은 1907년 염모제를 개발한 한 프랑스의 화학자 Eugene Schueller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설립자의 연구정신을 이어받아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로레알 연구소에는 약 2900명의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5%에 달한다. 또한 로레알은 2002년 한해 연구비로 약 6500억원을 투자했으며 특허수만도 501개에 달한다.

여성과 과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로레알은 한국에서도 한국 여성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과 함께 2002년부터 본 상을 제정하여 시상해왔다. 본 상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젊은 여성생명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후원에 더욱 노력하기 위해 2004년부터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으로 확대 시상하게 되었다. 이에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은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 진흥상'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을 주관해 오고 있다.

목 적

생명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중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포상하여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함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생명과학 진흥상 수상자들

제1회 (2002년도)

본　　상 : 노 정 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분자미생물학 연구실)

신진과학상 : 백 자 현
(연세의대 임상의학연구센터)

공 로 상 : 김 영 환
(국회의원)

공 로 상 : 오 세 화
(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제2회 (2003년도)

본　　상 : 김 영 중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진과학상 : 김 홍 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공 로 상 : 유 경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공 로 상 : 한 형 호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2004 과학문화지원사업 선정 과제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유입촉진에 관한 심포지움"

주제 1.

"여성 과학기술 인적자원과 여성 네트워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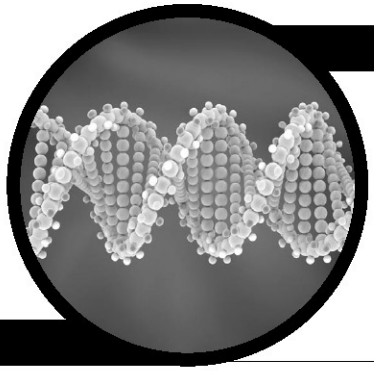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연사 :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 WISE 거점센터 소장)

주제 2.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

연사 :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지원기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기간: 2004. 4. 19 – 2004. 11. 31
주관기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참여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성 과학기술 인적자원과 여성 네트워크의 역할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 WISE 거점센터 소장

1. 여성만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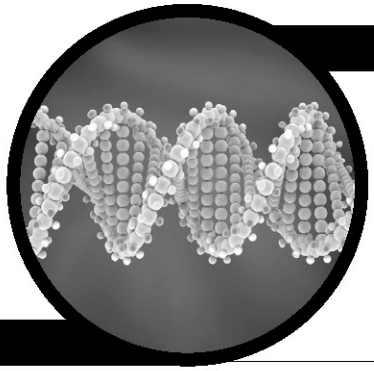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여성만의 네트워크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과학기술분야에서 지속적인 여성의 주변화
-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차에 대한 인식 제고
- 성 주류화 실현

2. 우리의 여성과학기술인력 개발 현황

- 2000년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연구인력이 10%를 넘은 후 01년 11.1% (19,930명)에서 02년 11.6% (22067명)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극히 미미함.
- 이공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양성에 비하여 활용이 현저히 낮음. 여성의 역할 모델이 적음.
- 과학기술과 성차에 대한 연구 미미함.

3. 여성과학기술 단체

-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성과학기술 단체가 국 내외에서 결성되어 왔음.
- 설립취지에 따라서 양성 평등 실현, 유용한 자료와 정보의 축적, 정책안, 후학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외의 대표적인 여성과학기술 단체와 그들의 활동 소개.



해외

- 미국 : AWIS, SWE, AAUW, AWM
  정성적인 자료 다량 축적
- 영국, 스웨덴: WITEC (EU의 거시적인 정책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캐나다 : professional women engineers club 등 소규모/적극적
- INWES

국내

- 여성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여러 단체가 설립되고 있음
- 여성건축가협회, 여성정보인협회, 한국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여성건설기술인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이공계여교수포럼,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등
- 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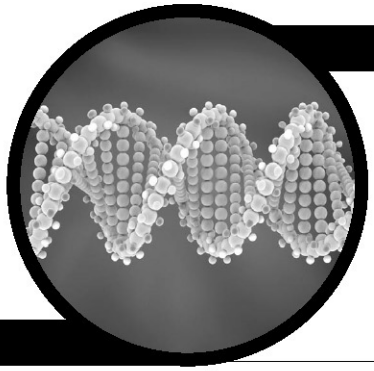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4. 여성과학기술 단체의 역할

여성단체의 중요한 역할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음.
NETWORK, RESOURCE, VOICE

- 네트워크: 남성들의 네트워크는 여성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잘 모름. 여성과 과학기술, 리더십 기회 부여
- RESOURCE: DB, 통계 자료, 멘토링 프로그램, 역할모델, 인턴십 scholarship/fellowship
- VOICE: 저술, 잡지 발간, 정책 제안 등등

5. 멘토링 프로그램의 소개

- 과학기술 분야에서 멘토링의 역할
- 멘토링의 종류
-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사례
- WISE 멘토링 프로그램의 소개와 멘토 되기 안내



약 력

성 명 이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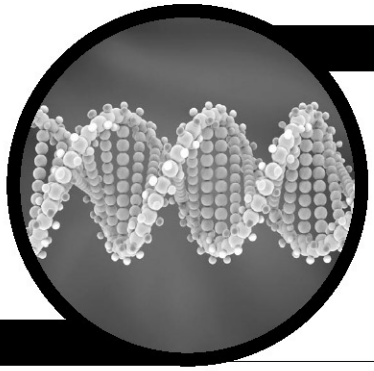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42동 104호

학 력

1967-1971	이화여대 수학과(이학사)
1972-1974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수학과(M.Sc.)
1974-1978	Queen's University(Ph.D.)
1978-1978	Universitat Regensburg 박사 후 연구원

경 력

1980-현재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현)
2001-현재	WISE사업 책임자 및 WISE 거점센터소장(현)
1997-2000	이화여대 연구처장
1998	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
1995-1997	이화여대 자연대학장
1995-1997	대한수학회 편집이사
1989-1990	대한수학회 무임소이사
1991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D)방문교수
2001-현재	국가과학기술운영위원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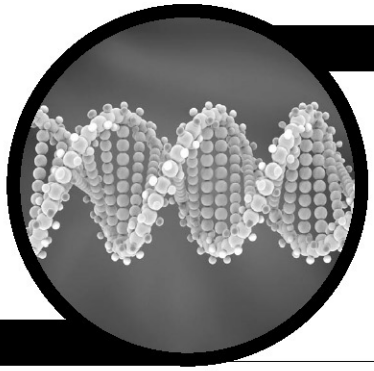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1. 문제의 제기

-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 5.9% (273석 중 16명), 제17대 국회의원총선결과 13.0%(299석 중 39석). 스웨덴(42.7%), 덴마크(37.4%)에는 못 미치나, 일본(10.8%), 필리핀(11.8%) 등 아시아국가보다는 상위.
-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란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
- 동·서 냉전체제와 이데올로기 대립 종식 이후 '여성다움'이 21세기 정치에는 우월한 특성으로 인식되기 시작. 정치현장에서 양보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기(氣)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아픔을 보살피지 못함.
-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온 한국정치 :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부정부패와 중상비방, 상대 당 헐뜯기 등 소모전을 벌여 국민으로부터 소외당함.

2.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 여성의원 진출이 늘어난 이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 13대 국회 때 평민당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제기한 지 10여년 만에 비례대표의 30% 여성할당제 선거법개정. 강제규정은 아니었지만 여성의원수는 증가. 여성 의원들은 괄목할만한 의정활동.
-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남녀동수 이상으로 하도록 함.
  ※ 프랑스 지방의원선거 남녀동수법(La loi de la parité)의 영향.
-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낮음.
- 2002년 6. 13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2002. 3. 7):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 50% 이상 여성추천 의무화.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지 않음. 30% 이상을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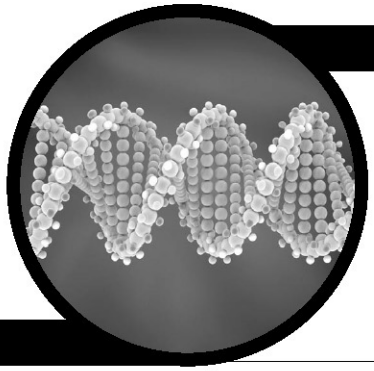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성으로 추천한 정당에는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2002. 6.1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73명) 중 67.1%인 49명의 여성후보 당선. 지역구 여성당선자 14명. 합계 시·도의원총수 682명의 9.2%에 불과.
- 제약요인: 정치인들의 고루한 사고방식과 돈,조직 중심의 구시대적 선거풍토, 여성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편견, 당내 경선이라는 벽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약됨. 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의 30% 이상 여성할당이 권고 사항으로 규정,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미미한 수준.

3. 한국의 정치개혁: 여성정치인을 부른다

- 패거리 정치, 붕당(朋黨)정치, 국민을 볼모로 삼아 정권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풍토 속에서 '정치 후진국'인 한국정치는 여성참여에 더욱 후진성을 보여줌. '차떼기정당', 대선을 통해 드러난 온갖 부정부패, 노무현 대통령 주변인물들의 부정…남성정치인들의 정치도의는 땅바닥에 떨어짐.
- 각 당은 선거결과 드러난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겸허하게 반성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음. 자기의 비리와 잘못은 덮어두고 반대당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데 혈안. 타락한 남성정치인들은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서 정권쟁취에만 집착하여 「신당」 창당 등으로 이합집산을 해옴. 시궁창 속에서 이전투구(泥田鬪狗)에만 몰두. 기성의 남성 정치인들에게서 21세기 정치지도력을 찾기 어렵다.
- 이런 한심스런 정치를 21세기에도 지속할 수는 없다. 21세기에는 정치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1세기 한국 정치는 상생(相生),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야. 21세기 한국정치는 혁신을 요구.
- 21세기는 여성지도자를 부르고 있다. 참신한 여성 정치인들이 나서서 구태의연한 투쟁적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창조적 정치를 펼쳐야. '소모적 정치,' '경성(硬性) 정치'를 배려와 관용의 '생산적 정치,' '연성(軟性) 정치'로 전환해야 함. 남-북한이 대치하고는 있지만 21세기에는 '군사, 안보 중심의 정치'에서 '환경, 문화, 교육, 건강, 복지, 인권, 여성 중심의 정치'로 틀을 바꿔야.
- 이러한 정치사조의 변화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지도자의 리더십을 요구. 관용과 조화는 여성다움의 발현이며 환경,교육,건강,복지는 바로 여성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항(les matières d'intér féminin).



포용과 타협, 조화의 정치를 펼쳐야.

- 지방자치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자치. 여성들의 꼼꼼한 지역살림살이의 지혜가 요구됨. 여성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여 민주정치문화를 창달하고 생활정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시켜야.

첫째, 21세기에 한국은 상생의 정치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정치를 위해 여성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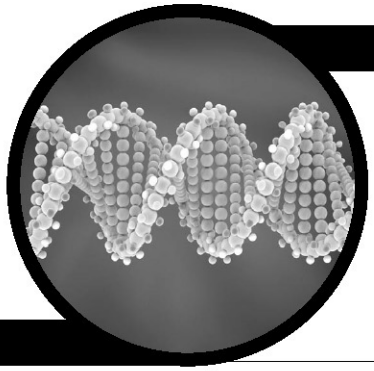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둘째, 포용과 조화의 정치시대가 될 것이다. 타협과 관용의 여성적 리더십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고급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셋째, 생활 속의 부드러운 정치를 요구할 것. 정치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권력 대결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생활정치, 풀뿌리 정치로 무게중심이 옮겨짐. 이제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

깨끗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청렴하며, 권력지향성이 낮다. 정책위주의 생활정치를 펼쳐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서 여성의원에 대한 기대를 밝게 해준다. 여성이 부패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이미 입증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에서 비리혐의로 사법처리 된 사람은 많았지만 이 가운데 여성 지방의원은 1명도 없었다. 세계은행(IBRD)이 성(性)과 경제 발전간의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공직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가 줄어든다고 한다.

4. 제약요인 :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가부장적(家父長的) 문화와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루한 사회적 통념을 버려야 함. 여성이 자력으로 정계에 입문하기란 힘든다. 시대착오적 남성우월주의를 불식시켜야. 이제는 국민의식도 바뀌고 있다.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이상의 법적 조치가 필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구 여성할당제' 필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자는 것. 시,도별로 지역선거구의 30%를 '여성 지역구'로 지정하여 여성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함.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민적 합의 필요.
-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혁해야. 중선거구제를 도입, 한 지역에서 3~4인을 선출하고 그 중 1석을 여성에게 할당.
-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 내지 유도하는 정당과 시민단체, 여성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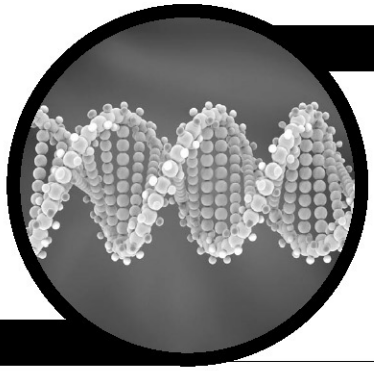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의 역할이 중요. 정당의 주요 당직에도 여성할당제 도입해야.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유능한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연수시켜 정치력과 리더십을 키우며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지원해야.

- 정당은 성 평등의식이 투철하고 정치개혁의지가 강한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 성 평등의식이 없는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중 누가 더 여성의 권익신장을 저해하는가? 여성의원이 더 문제라는 것이 여성 의원들의 견해이다.
- 여성의 정치참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도달하려면 정부의 대책 필요. 독일정부가 실시하는 정치교육은 많은 시사를 준다.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제고하는 교육프로그램 실시해야.
- 여성들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여성들의 모습은 낯을 뜨겁게 한다. 이제는 건전한 여성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는데 그치지 말고 비판과 설득을 해야.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에 재를 뿌리는 행위들을 용납해서는 안됨.
- 여성들은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해수욕장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뿔뿔이 흩어지는 무기력한 여성상이 아니라 여성들이 공통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쳐 훌륭한 여성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당선시키는 강한 여성상을 보여야 한다.
- 여성은 '통치의 대상, 정치의 객체'로 만족하지 말고 정치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조화의 정치'의 주역은 여성이어야 하기 때문.

5. 결론: 여성의 정치참여 없이 평등은 없다.

-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예를 보면 여성정치인의 배출을 강제하는 것이 여성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국회와 지방의회가 진정한 국민(주민)의 대표기관이 되려면 여성 의원들이 남성중심의 고루한 정치문화를 바꾸고 힘겨루기 정치를 생활정치로 돌려놓아야 한다.
- 여성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없다. 여성의 정치참여야말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매스컴이 앞장서서 홍보해 주어야 한다. 여성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정당의 획기적 대책, 시민단체, 여성단체의 여성교육 및 지원기능이 절실히 요망된다.



약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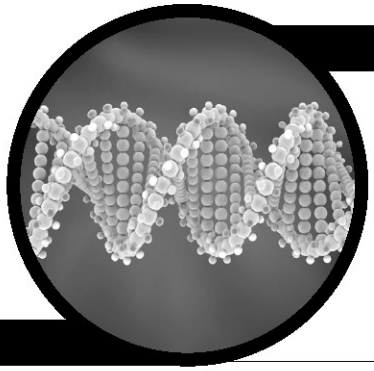
성 명 정세욱(鄭世煜) 아호(雅號) 중당(中堂)
주 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74-19, 멤피스현대아파트 101동 501호

학 력

1956 - 196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60 - 196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1973 - 1977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 (법경 · 사회과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국가박사)

경 력

1965 - 1971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전임대우 강사
1968 - 1971 행정사무관, 경제과학심의회의 교통체신담당관, 인력개발담당관
1971 - 1976 국민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1974 - 1975 사우디 아라비아 기획원 인력계획관(정부파견)
1978 - 2002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교수
1980 - 2000 외무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위원
1981 - 1995 내무부 · 총무처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1981 - 현재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지도교수
1981 - 1989 (사)한-불(韓-佛)기술협력회 회장, 한-불문화협회 회장
1985 - 1987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빵떼옹-소르본느대학), 파리제2대학교 초빙교수
1989 - 1991 명지대학교 기획관리실장, 법정대학장
1991 - 1993 명지대학교 부총장
1993 - 1994 (재)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제6대)
1994 - 1996 (재) 서울市政개발연구원 원장(제2대)
1996 - 1997 환(環)태평양 도시개발회의(Pacific Rim Council on Urban Development)의장
1996 - 1998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1997 -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명예회장, 고문
1999 - 2000 통합농협중앙회 설립위원회 위원장
2000 - 현재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2000 - 현재 감사원(제6국, 제7국) 지방재정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
2001.3 - 2001.12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2001 - 현재 전국 시 · 군 · 자치구의회의장회 고문
- 현재 해양경찰청 자문위원,
2001 - 현재 서울 송파구자원봉사센터 회장 등
2002.9 - 현재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
2002.11- 현재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저 서

지방자치학(2000),
한국지방자치의 과제(1997),
외국수도 및 대도시의 자치제도(1987),
정부기능의 민간이양과 경제자율화(1988),
공공요금결정제도에 관한 연구(1992),
행정학[공저](1990),
정부간관계-이론과 실제[편저](1997),
자치시대 수도행정의 발전전략[공저](1993),
한국정치의 민주화[공저](1989),
한국정치행정의 체계[공저](1982)

수 상

1984 국민훈장 석류장(石榴章)
1992 한국-L.A.시 친선교류공로장(L.A.시의회의장)
1993 제4회 농촌문화상(학술부문)
2000 홍조근정훈장
2001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기사장(騎士章)(Chevalier de l'Ordre National du Mérite)
2003 서울사랑시민상 문화부문, 인문과학분야 수상